

조사의 정의와 분류에 대하여*

고 석 주**

1. 여는 말

조사는 한국어의 특징 중의 하나로 널리 지적되어 왔으며 한국어 연구에서 주요한 연구 과제가 되어 왔는데, 대부분의 문법 체계에서 독립된 품사로 분류되어 왔다. 그런데, 조사라고 분류되어 온 것들에 대한 정의와 그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제시되어 왔지만, 그 근거가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조사에 대한 기존의 정의와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그것이 갖는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사의 정의와 분류 체계가 조사의 분포적 사실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고자 한다.¹⁾

* 이 글은 2014년 12월 11일 국어학회 41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보조사의 정의와 분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논문 심사 과정에 서 제시된 사항들도 일부 반영하였다. 논평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어국문학과

1) 고석주(2001)에서 지적했듯이, 조사 전반의 분포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김영희(1974)에서 비롯한다. 조사들의 결합 관계에서의 조사 분포에 대한 연구로 양인석(1972), 김영희(1974), 서정수(1994), 남윤진(1997), 목정수(1998), 임동훈(2004) 등이 있고, ‘특수조사’에 대한 연구로는 홍사만(2002)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격조사’ 범주를 설정하고 있는데, 특히 목정수(1998)는 조사 ‘이/가’와 ‘을/를’의 분포적 특성이 조사 ‘은/는’, ‘도’와 동일하다는 근거에서 이들을 ‘한정사(=관사)’ 범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이를 보이니, 여전히 ‘에, 로’ 등을 문법 관계 표지(격조사)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연구들과 동일하다.

전통문법에서는 품사론의 측면에서 조사의 범주적 지위와 관련된 논의가 많았는데, 이 글에서는 조사 범주가 단어로서의 지위를 갖느냐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또한 조사와 접미사 혹은 의존명사와의 경계 설정에 대한 것도 논의하지 않는다.²⁾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의 정의와 분류 체계의 문제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개별 조사의 의미와 하위 범주 구분에 대한 논의도 이 발표의 주제 밖의 것으로 제외한다.

2. 기존의 조사 정의와 분류 체계

한국어의 조사 범주는 한국어의 특징 중의 하나로 널리 지적되어 왔다. 주로 체언에 붙어서 앞말이 문장에서 다른 말과 가지는 관계를 나타내 주거나, 앞말에 뜻을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 형태소로 정의되어 왔다. 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정의와 분류는 아니지만 주시경(1910)에서 아래와 같은 간략한 기술을 찾을 수 있다.

(1) 주시경(1910: 27-29, 74-87)

ㄱ. 기난갈(27-29)

꺄: 임기의 만이나 움기의 자리를 이르는 여러가지 기를 다 이름이다(본: 가, 이, 를, 을, 도, 는, 에서, 로, 으로)

읻: 한 말이 한 말에 잇어지게 함을 이르는 여러가지 기를 다 이름이라(본: 와, 과, 고, 면, 으면이면, 나, 으나, 이나, 다가, 느데, 아, 어)

(잡이)... 꺄: 서로 얹히는 뜻이라.

ㄴ. 꺄의 갈래(74-83)

- 만이: 임이와 쏘이의 만의 다름; 임이와 쏘이의 직권의 분별;

2) 현행 학교문법이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명사에 붙는 접미사로 ‘들’, ‘남’, ‘씩’ 등을 접미사로 처리하는 데, 조어론의 측면에서 무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이나 씹이가 되는 표; 임기의 직권이 어떠함을 보이는 것.
 임훔만: 아무 다른 뜻 없이 단순하게 임이 되는 직권만 보이는 것. 곳 임기가 아무 관계 없이 임이 되는 직권만 있음을 보이는 것 (본: 가, 이) (풀이) ‘새가 날더라’ 이 말에 ‘가/(이)’가 임훔만이니, 날의 움직임을 하는 것이 새라 함을 보임이요 곳 날의 움직임을 하는 것이 새가 됨을 보임이라.

쌔훔만: 아무 다른 뜻이 없이 단순하게 씹이 되는 직권만 보이는 것; 임기가 아무 관계 없이 씹이 되는 직권만 있음을 보이는 것.(본: 를, 을)

덤이임만: 여럿이 겹치어 한덩이 몸으로 임이가 됨을 보이는 것 (본:에서)

한가지만: 이 임이의 남이(술어)가 그 뜻한 어느 임이의 남이와 서로 같은 것과, 이 씹이가 그 임이의 움직임을 받음이고 뜻한 어느 씹이가 그 임이의 움직임을 받음과 서로 같음을 보이는 것(본: 도) (풀이) 나도 가오 이 말에서 도가 한가지만이니 나의 움직임 ‘가’가 그 뜻한 어느 임이의 움직임 ‘가’와 서로 같음이 된다 함을 보이는 것이니, 이는 임한만이라(한만은 곳 한 가지만이라)

다름만(는, 은), 다름한만(ㄴ들, 인들, 라도, 이라도), 안가림만(든지, 이든지, 나, 이나),

홀로만: 다른 이는 다 없는 남이를 이 임이나 씹이는 홀로 있는 것(본: 만)

- 금이(나 자리): 남이의 자리를 금하는 것 곳 움직임의 자리를 가르치는 것. 곳 임기의 알에 더하여 억기, 몸, 곳, 금이가 되게 하는 것

자리금: 남이가 곳에서 됨을 가르치는 것(본: 예, 로, 에서, 까지, 쯔)

몬금: 움직임이 몬에서 됨을 가르치는 것(본: 예,에서)

때금(예, 로, 에서, 까지, 쯔), 햄금(예, 로, 에서),

부림금: 움직임이 어느 몬을 부리어 됨을 가르치어 내는 것. 곳 몬이나 일의 임기가 그 임이의 움직임에 부리어짐이 됨

을 가르치어 내는 것(본: 로, 으로)
 울몬금(에서, 서, 에게, 게, 에게서, 다려), 일금(에, 에서), 낮은
 금(마다),

ㄷ. 잇의 갈래(83-87)

- 덩이: 한덩이가 되게만 하려고 사이에 두는 것(본: 와, 과,
 고) (폴이) 베투와 먹이 잇소 ... 네 말의 히고 큼이 내 말과
 비슷하다; 이 말들의 와, 과가 덩이잇이니 선후와 별관계
 가 없이 한덩이 되게만 하려고 사이에 두는 것이라.

주시경(1910)의 <기난갈> 부분에서는 ‘잇’(접속사) 부분을 따로 두
 어 다른 조사와 구별을 했고, <것의 갈래>부분에서는 조사 ‘이/가’를
 아무 뜻이 없이 임이(주어)가 되는 직권(職權; 기능)만 있는 것으로 기
 술하였으며 조사 ‘을/를’의 경우에도 아무 뜻이 없는 것으로 기술하
 여, 의미 폴이를 제시한 다른 조사와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기
 술은 주시경(1910) 이후의 문법서들에서 나타나는 조사 분류인 ‘구조
 (문법)격조사(만이)’, ‘의미격조사(금이)’, ‘보조사(만이, 금이)’, ‘접속조
 사(잇)’ 등의 구별 기준의 시발점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위에서 밑줄 친 부분들인
 데, 조사가 아무 뜻 없이 어떠한 직권이 있음만을 보이는 것이라는 기
 술(임훗만, 씌훗만)과, 무엇이 어느(다른) 것과 같음을 보이는 것이라
 는 기술(한가지만)과, 특별한 관계 없이 한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기술(덩이)이다. 이 세 가지는 이후의 문법서들에서 ‘격조사’와 ‘보조
 사’와 ‘접속조사’에 대한 기술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내용들인데 아
 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박승빈(1935:331-354)

조사는 한 단어(구 또는 절)에 첨가하여서 다른 단어(구 또는
 절)와의 관계나 또는 그 문에 대한 관계를 표시하는 단어이
 다.(331). 언어의 주성부분인 체언과 용언이 다 조사의 조종에

인하여서 비로소 그 문에 사용되는 기능을 갖추게 됨이라. 조사는 (1) 체언의 격에 당한 관계를 표시하며 (2) 체언과 체언과를 연결하고 그 연결되는 관계(연계 또는 선택)를 표시하며(5) 체언 또는 용언의 사용에 그 취지가 표별적으로 됨이며 협수적으로 됨의 관계를 표시하는 등 호한(浩瀚)한 임무를 맡아있음. 체언조사 체언에 첨가되는 조사를 체언조사이라고 이름 (1) 표격조사 체언의 격을 표시함에 사용되는 조사를 표격조사이라고 이름. 표격조사는 체언의 격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니 그 종류는 명사의 격(문의 조직에 대한 명사의 관계를 명사의 격이라고 이름; 182)의 종류에 좇음. (2) 같은 격으로 사용되는 복수의 체언을 접속함에 사용되는 조사를 접속조사이라고 이름 접속조사에는 연계적 접속과 선택적 접속이 있음.

별동(別働)조사 별동조사는 전속적으로 체언 또는 용언에 첨가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존재한 단어가 투입적으로 문의 가운데에 들어와서 다른 말에 첨부하여 그 의의를 나타내는 것임. 별동조사의 임무는 다른 조사와 같이 직접으로 체언 또는 용언의 그 문의 조직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작용을 가진 것이 아니고 간접으로 그 조사의 첨부된 말의 다른 구, 절 또는 문에 있는 말이나 혹은 당시의 배경에 대한 관계를 표시하는 작용을 가짐. 별동조사는 우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체언과 용언에 공통해야 첨부되며 또 부사에도 첨부됨.

(3) 최현배(1937/1961:611)

토씨는, 생각씨에 붙어서 그것들 사이의 걸림을 보이며, 또는 그 뜻을 더하는 씨이니라. 걸림씨 또는 토씨는, 생각씨에 붙어서 그것들 사이의 걸림(關係)를 보이며, 또는 그 뜻을 더하는 씨이니라.

(4) 정렬모(1946:130-140)

“빛은 감말의 덧감말이나 월 가운데에 있어서의 처지에 매년 ‘자격’이다”(130). 임자빛(이/가), 휘두를빛(르/을/를), 부릴빛(로/

으로), 기델빔(에/게/께), 떠날빔(서), 더블빔(와/과), 기울빔(이/가), 엇칠빔(의), 두루빔(∅) 명사가 임자빔인 것을 나타냄에는 “꽃이” “새가”와 같이 도움낱뜻 “이” “가”를 붙인다. “꽃 피고, 달 뜬다.의 _와 같은 것은 임자말이기는 하나 임자빔은 아니다. 이것을 두루빔이라 한다. 여기서는 우연히 주체를 나타내고 있지 마는 ‘꽃 보고, 달 보고’라 하면 객체를 나타내게 된다. ‘이’‘가’가 붙지 아니한 것은 주체를 나타낸다고만 할 수 없으니 까 임자빔은 아니다. 존경할 자리의 임자빔으로 ‘께서’ ‘께옵서’‘께오서’란 도움낱뜻을 쓰는데 이것도 떠날빔의 전용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133)

(5) 이희승(1949:46-58, 160, 173)

조사: 격조사, 특수조사, 감탄조사

[102] 글월 속에서 체언이 다른 말에 대하여 가지는 자격을 격이라 일컫고, 체언으로 하여금 격을 가지게 하는 조사를 격조사라 이른다.

[103] 위에서 말한 바 주격 조사, 호격 조사, 목적격 조사, 여격 조사, 소유격 조사는 다 격조사들이니, 주격 조사와 호격 조사는 그 뒤에 오는 체언으로 하여금 글월의 주어 되는 자격을 가지게 하고, 목적격 조사는 체언으로 하여금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의 목적(즉 대상)이 되는 자격을 가지게 하고, 여격 조사는 체언으로 하여금 무엇을 받는 자리에 서는 자격을 가지게 하며, 소유격 조사는 체언으로 하여금 일이나 물건의 임자 되는 자격을 가지게 한다.

[105] 조사 중에는 체언으로 하여금 일정한 한가지 격만을 가지게 하지 않고, 때를 따라서 주격, 호격, 목적격, 여격들에 두루 쓰이는 것들이 있다.(용언이나 부사 아래에 쓰이는 일도 있다)

[109] 이와 같이, 여러 격에 두루 쓰이는 조사를 특수 조사라 일컫는다.

[110] 조사 중에는, 감탄하는 느낌이나 뜻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262] 그 글월의 주체(=알맹이)가 되는 말을 주어라 이르고 (160),

[286] 한정어는 일반적으로 용언의 뜻을 더 분명하고 자세이 제한 하는 구실을 가진 말이요, 언제든지 꼭 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목적어와 보충어는 예사 한정어와 달라서, 반드시 쓰이어야 그 용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성질을 가진 말이다.(173)

(6) 허웅(1995/2000:1233-1236)

토씨는 그 자체의 쏘바뀔이 없으며, 사전뜻(실사로서의 뜻)을 가지지 않고, 말본뜻(허사적인 뜻)을 가진 구축형태로서,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월성분(월조각)의 자격을 가질 수는 없으나, 주로 임자씨에 붙어서 그 임자씨로 하여금 어떠한 월성분이 되게 하거나 어떠한 뜻을 덧붙이는 낱말의 한 갈래이다.(1233) 토씨는 일반적으로 낱말(그 중에서도 임자씨)에 붙는 것인데, 이것이 ‘일반적인 토씨’(줄여서 ‘일반토(씨)’)이다. 토씨 가운데는 마디에만 붙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특수토씨’(줄여서 ‘특수토’)이다. 주로 임자씨에 기대는 일반토씨는, 그것이 기대는 언어형태에, 월조각으로서의 일정한 자격을 붙여 주는 것과, 그러한 일정한 자격을 붙여 주지 않는 것으로 나뉜다.(1234) 풀이말의 내용에 대한 임자, 위치, 상대, 대상과 같은 개념은, 토씨가 기대는 언어형태와 풀이말의 내용을 이어주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러한 개념을 ‘관계개념’이라 한다.(1235) 일반적인 토씨 가운데 일정한 관계개념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어떠한 뜻을 덧붙이는 성격을 가진 토씨를 도움토(씨)라 한다.(1236)

(7) 김승곤(1996: 220)

혼자서는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임자씨에 붙어서 그 임자씨와 풀이말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말본적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의미적 관계를 나타내 주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찌씨와 풀이씨에 붙어서도 의미적 관계를 나타내어 주는 씨를

토씨라 한다.

(8) 남기삼·고영근(1993/2011:93)

조사는 단어 또는 어절에 붙어 그 말의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어떤 뜻을 더해 주는 것이라고 고쳐 정의할 수 있다.

(9) 서정수(1994:776)

‘조사’라는 용어는 ... 여러 기능 범주를 한데 묶어서 담는 일종의 ‘주머니’에 비유된다. 이런 주머니는 내용물을 담고 있을 뿐이고 그 내용물의 기능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조사는 여러 기능 범주를 포괄하는 상위의 기능 범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편의상 이 범주들을 가리켜 부를 때에 조사라는 말을 쓸 뿐이다.

(10) 황화상(2012:26, 33)

격조사의 경우에는 체언의 문법적 관계(격 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보조사의 경우에는 그 기능이 의미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격조사와는 본질적으로 그 속성이 다르다.(26)

조사는 전통적으로 구분해 왔던 것처럼 그 구체적인 기능에 따라 다시 그 기능이 격에 관련된 격조사와 그 기능이 의미에 관련된 보조사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접속조사를 조사의 한 유형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33)

이상에서와 같이, 주시경(1910) 이후로 문법서들뿐만 아니라 조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사를 ‘말’(단어)과 다른 ‘말’(단어)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단어)에 뜻/의미를 덧붙이는 범주로 기술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조사의 하위 분류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왔다.

<표 1> 조사 형태와 하위 분류³⁾

조사 형태	서정수 (1996)	허웅 (1995)	이남순 (1996)	최동주 (1997)	목정수 (1998)	임동훈 (2004)
에, 에게(한테), 에서, 로	후치사	격조사	격조사	후치사	격조사	의미격조사
과(하고), 처럼	접속 기능소	격조사/ 접속조사				
만, 부터, 까지, 조차, 마저, 마다	한정사	보조사	특수조사	특수조사	보조사	후치사 (특수조사)
가, 를	기능 표지	격조사	격조사	격조사	한정사 (가,를,는, 도, 만)	문법격조사 참사 (특수조사)
의	관형화소					
는, 도, 야, 나, 나마, 라도	한정사	보조사	참사	특수조사		
요, 라고		특수조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한국어 문법 기술에서는 조사를 단어와 단어 사이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통사적 기능(격과 접속)의 조사와, 단어(의 의미)에 의미를 덧붙이는 의미적 기능의 조사라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되어 왔다.⁴⁾ 이러한 분류는,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문법 관계(또는 문장 성분)와 인구어의 ‘격’ 범주 등과 이론적 범주들이 한국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한국어의 조사를 파악한 결과로 추정되는데,⁵⁾ 그에 따른 문제들을 살펴보겠다.

3) 학자에 따라, ‘보조사’를 ‘특수조사’라고 부르기도 하나(허웅 1995 제외), 앞말에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라는 식의 정의는 동일하다.

4) 그 밖에도 임흥빈·장소원(1995) 등은 ‘격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의 세 범주로, 남윤진(1997, 176쪽)에서는 ‘격조사’, ‘보조사(I, II, III)’, ‘접속조사’, ‘특수조사’의 네 범주로 나누었다. 이 연구에서는 ‘-들’, ‘-쯤’ 등과 같이 명사 다음에 쓰이는 개별 형태소들이 ‘조사 범주’에 속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조사들이 한국어의 모든 조사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5) 이는 영어학/언어학 연구자들의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양인석(1972)와 김종복(2004) 등이 있다.

3. 문제들

3.1. 조사 정의의 문제

조사는 범주의 설정과 그 분류에 대한 어려움은 앞에서 제시한 서정수(1994/1996)의 기술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근원은 다름 아닌 조사에 대한 정의 자체의 문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편의상 남기심·고영근(1993/2011)의 조사 정의를 다시 인용한다.

- (11) 남기심·고영근(1993/2011: 93): 조사는 단어 또는 어절에 붙어 그 말의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어떤 뜻을 더해 주는 것이라고 고쳐 정의할 수 있다.

(11)은 아래와 같이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12) 조사는 단어 또는 어절에 붙어 그 말의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한다.
 (13) 조사는 단어 또는 어절에 붙어 어떤 뜻을 더해 준다.

(12)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먼저 형태소 이상의 언어 단위(표현)들 중에서 ‘말(단어 또는 구)’와 다른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언어 단위가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단순히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문법 형태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법 형태소로서 학자에 따라 조사와 함께 ‘토(씨)’라는 범주로 묶이기도 해 온 ‘어미’도, 예를 들어, 종결 어미 ‘-다’는 문장의 종결을 표시하는 관계적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한 서법 상의 의미 기능으로서 ‘진술’이라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가 아무 의미 없이

순전히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만을 표시한다는 정의(범주 설정)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로 조사가 표시하는 관계로 제시된 ‘주어’와 ‘목적어’ 등의 문법적 관계가 문법적으로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흥식(1996)에서는 문장 성분의 문법적 근거 확인의 어려움을 제시한 바 있으며, 고석주(2000/2004)에서는 ‘주어’와 ‘주격 조사’, ‘목적어’와 ‘목적격(혹은 대격) 조사’가 순환론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기존의 문헌들에서 제시한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문법 관계에 대한 기술이 ‘말’ 그 자체가 갖는 문법적 특성이기보다는 그 말의 의미(지시체)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고영근·구본관(2008: 281-284))에서는 “통사론적으로 볼 때 주어는 그 나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어의 변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 (14) 가. 우선 우리말의 어순에서 주어가 문장의 첫머리에 놓인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 나. 다음으로는 존경의 주어 명사구에 대한 정보가 서술어에서 반영되어 일치(一致, agreement)가 일어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 다. 셋째로는 채귀칭은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주어 명사구를 대용하는 기능을 띠고 있다.
- 르. 넷째로는 주어와 관련되는 부사 ‘일부러, 저절로’를 들 수 있다.
- 미. 다섯째로는 질량성과 추상성을 띤 명사나 부사에 복수 표시의 보조사 ‘들’이 붙으면 주어 명사구는 거의 예외 없이 복수로 보아도 좋다.

(14)에서 제시된 주어가 다른 말과 가지는 ‘통사론적’ 관계들(ㄴ-ㄴ)은 모두 주어 명사구의 의미(지시체)에 대한 파악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주어는 주어로 쓰인 ‘말’ 그 자체가 다른 말과 가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의 의미(지시체)가 가지는 (문법적)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격조사를 분류하되 문장 성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서술격, 부사격, 호격’으로 분류”(앞의 책; 150쪽)한다 해도, 이들 조사가 나타내는 관계는 말과 말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의 의미(지시체)가 다른 말의 의미(지시체)와 갖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선행 연구에서 ‘의미격/내재격 조사’나 ‘의미역 표지’등으로 기술되어 온 ‘에’, ‘로’ 등의 조사의 경우에 더욱 자명하다고 하겠다.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이른바 ‘격조사’들이 나타내는 것이 의미(지시체)와 의미(지시체) 사이의 관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12)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겠다.

(12)’ 조사는 단어 또는 어절에 붙어 그 말의 의미(지시체)가 다른 말의 의미(지시체)와 가지는 관계를 나타낸다.

(12)와 (12)’의 차이는 조사가 ‘말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말이 나타내는 ‘의미(지시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조사에 대한 (13)의 기술 역시, ‘어떤 뜻을 더해 주’는 대상이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나타내는 의미(지시체)이고, 조사가 더해 주는 뜻은 다른 말의 의미(지시체)와의 관계라는 것으로 수정할 수 있겠다. 고영근·구본관(2008)에서 조사 ‘은/는’은 ‘대조’의 기능을, ‘만’은 ‘단독(오직)’의 의미 기능을, ‘도’는 ‘포함(역시)’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미 기능들 역시 조사가 결합한 말의 의미(지시체)가 다른 것과 가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11)의 조사 정의는 아래와 같이 간결하게 수정될 수 있겠다.

- (15) 조사는 앞 말에 붙어 그 말의 의미(지시체)가 말화 맥락에서 다른 개체와 가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⁶⁾

(15)의 조사에 대한 정의는, 이질적인 두 부류의 묶음으로 기술한 기존의 조사 정의와 달리, 조사의 공통적인 특성을 포착한다고 하겠다.⁷⁾

3.2. 조사 분류의 문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조사 연구들은 조사의 기능을 이질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기술함으로써 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와 ‘접속조사’,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와 ‘첨사’)로 분류해 왔는데, 이러한 분류 체계는 학자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제각기 해명해야 할 문제들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기존의 조사 분류 체계는 조사의 분포적 사실과 충돌한다. 고석주(2000)에서는 조사들끼리의 결합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포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
- 6) 여기에서는 조사가 단어나 어절뿐만 아니라 더 큰 언어 단위에도 결합할 수 있음을 고려해 단어나 어절 대신에 ‘앞 말’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리고 ‘다른 말’ 대신에 ‘다른 개체’라고 함으로써 말로 표현된 의미(지시체) 이외에 담화 상황에서 파악될 수 있는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까지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 7) 황화상(2012)에서는 ‘격조사’와 ‘보조사’가 모두 “그 기능이 통사구성에 관련되며, 통사구조에서 통사적 장치를 통해 그 기능이 실현된다는 통사론적 범주 특성을 갖는다”(32쪽)고 하였다.

<표 2> 조사끼리의 결합에 따른 분포의 차이⁸⁾

위치	선 행 조 사																	
	1						2						3					
후 행 조 사	형태	에	에	에	로	과	처럼	만	부	까	조	마	마	의	가	를	는	도
	에	×	×	×	×	×	×	×	×	○	○	×	○	×	×	×	×	×
	에게	×	×	×	×	×	×	×	×	×	×	×	○	×	×	×	×	×
	에서	×	×	×	×	×	×	×	×	○	×	×	○	×	×	×	×	×
	로	○	○	×	×	×	×	○	○	○	○	×	○	×	×	×	×	×
	과	○	○	○	×	×	×	×	×	×	×	×	×	×	×	×	×	×
	처럼	○	○	○	×	×	×	×	×	×	×	×	×	×	×	×	×	×
	부터	○	○	○	○	○	×	×	×	×	×	×	×	×	×	×	×	×
	까지	○	○	○	○	○	×	×	×	×	×	×	×	×	×	×	×	×
	조차	○	○	○	○	○	×	×	○	×	×	×	×	×	×	×	×	×
	마저	○	○	○	○	○	×	×	×	×	×	×	×	×	×	×	×	×
	마다	○	○	○	○	○	×	×	×	×	×	×	×	×	×	×	×	×
	만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를	○	○	×	×	○	×	○	○	○	○	○	○	×	×	×	×	×
	는	○	○	○	○	○	○	○	○	○	×	×	○	×	×	×	×	×
	도	○	○	○	○	○	○	○	○	○	○	○	×	×	×	×	×	×
	야	○	○	○	○	○	○	○	○	○	×	×	×	×	×	×	×	×
	나	○	○	○	○	○	○	×	○	○	×	×	×	×	×	×	×	×
	나마	○	○	○	○	○	○	○	○	○	○	×	×	×	×	×	×	×
	라도	○	○	○	○	○	×	○	○	○	×	×	×	×	×	×	×	×

**(○는 가능한 결합, ×는 불가능한 결합)

<표 2>에서 파악되는 문제는 이른바 구조격(혹은 문법격) 조사인 ‘가’, ‘를’, ‘의’의 다른 조사와의 결합과 분포가 임동훈(2004)에서 ‘침

8) 표는 고석주(2004)에서 제시된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조사들이 한국어에서 조사로 분류되는 모든 형태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표에서 선행조사와 후행조사의 1, 2, 3은 조사의 출현 순서를 기준으로 할 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음을 뜻한다. 조사 ‘과’의 결합 분포는 입말에 쓰이는 이형태 ‘하고’의 분포도 포함한 것이다.

사’라고 분류된 조사들과 일치하며, 널리 지적되어 왔듯이 1.1과 1.3에서처럼 ‘격조사’의 중첩이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조사 분류 체계와 어긋남이 있다는 것이다.⁹⁾ 즉, 이러한 불일치의 문제는 조사의 분류가 “체언으로 하여금 (자)격을 가지게 하는 조사”라는 식의 정의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격조사’ 범주와 체언에 뜻을 더하는 ‘보조사’(또는 특수조사)범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못함을 보인다고 하겠다.

격조사 범주의 설정의 문제는 그것이 표시하는 문법적 관계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낸다. ‘격’을 논항의 ‘문법적 관계 혹은 기능’에 대한 범주로 간주한다면, 한국어에서 특정 ‘조사’가 특정 ‘관계 혹은 기능’과 대응되어야 하나 기존의 연구에서 ‘격조사’라 불리워 왔던 조사들은 그러한 일대일의 대응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생성 문법 중심의 통사론에서 주장하듯이, ‘격’이 문장의 통사적 구조에 의해 할당된다면, 특정 ‘통사 구조’에서는 반드시 특정 ‘격’이 할당되고 그 ‘표지’가 나타나야 하나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

전통적으로 한국어 문법 기술에서는 ‘주어’, ‘목적어’ 등의 문장 성분을 설정해 왔고¹⁰⁾ 일반적으로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움직임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을 말하고, 목적어는, 타동사 서술어가 나타내는, 주체의 움직임의 대상, 또는 대상이 된다고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객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는 식의 정의가 제시되었다.¹¹⁾ 그리고 ‘격조사’는 그러한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표지

9) 조사 ‘가’, ‘를’이 다른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거나 체언 이외의 것과 결합하는 경우를 ‘격조사의 보조사적 쓰임’이라고 하거나 동음이의어로 처리하는 방식의 해결책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석주(2000, 2장)을 참조.

10) 이흥식(1996)에 따르면,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문장 성분의 설정은 유길준의 ‘조선 문전’에서 이미 나타나는데 ‘주어’, ‘설명어’, ‘객어’, ‘수식어’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11) 이 정의는 허웅(1999)에서 가져온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허웅(1999, 357과 374쪽)을 참조.

로 기술되어 왔다.

- (16) ㄱ. 학교-에/가/에가 나무가 많다.
 ㄴ. 이 붓-으로/이/으로가 글씨가 잘 써진다.
 ㄷ. 나는 도서관-에서/이/에서가 공부가 잘 된다.
- (17) ㄱ. 선생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ㄴ. 그 회사-에서만 신입 사원을 안 뽑았다.
- (18) ㄱ. 이쪽 의자-에/를/에를 앉아라.
 ㄴ. 미국-에서를 제외하면 가족 여행을 가 본 적이 없다.
- (19) ㄱ.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가라.
 ㄴ. 친구-한테로부터의 연락은 없었다.
- (20) ㄱ. 난 밥-∅/이/을 먹고 싶어.
 ㄴ. 철수가 학교-∅/에/으로/가/를/에를 가고 싶다.

위의 예들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격 중첩’ 현상으로 제시되어온 것들인데, 체언이 문장에서 갖는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 혹은 문법적 관계를 ‘격조사’가 나타낸다는 식의 기술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현상들이다.¹²⁾ (16)의 문장에서, 조사 ‘에’나 ‘로’ 등이 체언이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라면, 조사 ‘가’는 ‘부사어’가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17)에서는 ‘선생님’이나 ‘회사’가 주격조사 ‘께서’가 결합해서 ‘주어’가 된 문장 성분에 다시 주격조사 ‘가’가 결합해서 ‘주어가 다시 주어’가 되는 현상이 되고 만다. 마찬가지로, (18)에서는 ‘부사어’가 다시 ‘목적어’가 되고, (19)에서는 ‘부사어’가 다시 ‘부사어’가 되거나 ‘부사어’가 ‘관형어’가 되는 혼란이 일어난다.

특히, (20)의 경우에서와 같이 체언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

12) 허웅(1995), 목정수(1998), 임동훈(2004) 등에서는 ‘부사격조사’의 중첩을 합성조사로 보거나 합성조사화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조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의 문법적 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정 '격조사'의 복원에 의해 체언의 문법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20)의 경우에는 하나의 체언이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셈이 된다.¹³⁾ 곧 이러한 문제는 이들 조사가 체언이 문장에서 가지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로 파악되는 관점이 성립하기 어려움을 뜻한다.

기존의 조사 분류 체계에서는 개별 조사의 상이해 보이는 쓰임에 대해서 '격조사의 보조사적 용법'으로 처리하거나, 각각의 쓰임을 '격조사'와 '접속조사' 또는 '보조사'의 동음이의어(혹은 범주 통용)로 처리해 왔다. 예를 들면, 조사 '와/과'는 대칭동사 구문에서는 '동반의 부사격조사'로 다른 동사 구문에서는 '접속'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따로 접속조사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21) 가. {순이와 영이가}/{*순이가 영이와} 아름답다./착하다.
 나. {순이와 영이가}/{*순이가 영이와} 회장이 되었다.
 다. *{순이와 엄마가}/{순이가 엄마와} 산다/있다.
 르. {순이와 영이가}/{순이가 영이와} 학교에 간다.
- (22) 가. {순이와 영이가}/{순이가 영이와} 친하다/답았다/비슷하다.
 나. {순이와 영이가}/{순이가 영이와} 만났다.
 다. {순이가 영이와}/{순이와 영이가} 싸웠다.

13) 이와 같이 여러 '격조사'가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 허웅(1995: 1247-1248)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원칙으로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토가 어울릴 수는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자리토는 풀이말에 대한 일정한 관계개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자리토가 둘이 겹쳐지면 그 관계개념에 혼선일 일어나게 될 것이다.<중략>... 이 말들은 밖으로 나타나 있는 그대로의 짜임새로써는 말본의 풀이가 되지 않는다. 다른 자리말이 임자말을 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짜임새에 있어서는 그 속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설명은 이른바 '격조사'가 통사론 층위의 범주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뜻하며, 조사의 중첩 현상이 “속을 들여다 보”는 의미·화용론의 층위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르. {그가 거친 파도와}/*{그와 거친 파도가}/*{거친 파도와
그가} 싸우면서

(21)에서 조사 ‘와/과’는 ‘접속조사’이고 (24)에서는 ‘동반의 부사격 조사’일 텐데,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21)과 (22)의 문법적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¹⁴⁾

이와 같은 이중적 처리의 문제는 조사의 실현 현상과도 관련된다. 예를 들어 조사 ‘이/가’와 ‘을/를’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면서 ‘격조사’와 ‘보조사’ 두 가지 쓰임이 있는 ‘동형어’ 혹은 ‘다의어’로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조사는 주어 자리로 파악되는 경우에서도, 다른 조사들과 중첩되어 쓰이는 경우에서도 동일한 의미·화용적 제약을 보인다.

(23) ㄱ. 요즘은 아무-* \emptyset /나/*가/*도/*는 대학에 간다.

ㄴ. 철수- \emptyset /*나/가/도/는 대학에 간다.

(24) ㄱ. 아무- $\left\{ \begin{smallmatrix} \text{한테} \\ \emptyset \end{smallmatrix} \right\}$ -* \emptyset /*나/*가/도/*는 돈이 없다.

ㄴ. 우리- $\left\{ \begin{smallmatrix} \text{한테} \\ \emptyset \end{smallmatrix} \right\}$ - \emptyset /*나/가/도/는 돈이 없다.

(25) ㄱ. 그는 요즘 아무-* \emptyset /나/*를/*도/*는 만나.

ㄴ. 그는 요즘 여러 사람- \emptyset /*이나/을/*도/*은 만나.

(26) ㄱ. 아무 곳- $\left\{ \begin{smallmatrix} \text{에} \\ \emptyset \end{smallmatrix} \right\}$ -* \emptyset /*나/*를/도/*는 안 가.

ㄴ. 저 고양이는 사람- $\left\{ \begin{smallmatrix} \text{한테} \\ \emptyset \end{smallmatrix} \right\}$ - \emptyset /*나/를/?/*도/는 안 가.

위의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 ‘이/가’와 ‘을/를’은 부정대명사

14) 조사 ‘와/과’는 주시경(1910)에 따르면 “한덩이가 되게 하”는 의미를 갖는데, 이에 따르면 (21)과 (22)는 한덩이가 되어서 어떤 사태와 관계를 갖는 것과 누가 어떤 사태에서 다른 누구와 한덩이가 되는 것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와 결합할 수 없는데, 문장의 의미에 따라 제3유형의 조사들이 결합에 제약을 보인다. (23)는 주어 자리에서, (25)은 목적어 자리에서, (24)와 (26)는 다른 조사와 중첩되어 쓰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조사 ‘이/가’와 ‘을/를’이 의미·화용적인 제약에 따라 제3유형의 조사들과 하나의 계열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아래에서도 확인된다.

- (27) ㄱ. 교실에 사람- \emptyset/∇ 이 하나 보이지 않았다. (\emptyset 부정 극어;
 ∇ 단순 수사)
 ㄴ. 교실에 사람 하나- \emptyset/∇ 가/*도/*는 보이지 않았다. (\emptyset 부정 극어; ∇ 단순 수사)
 ㄷ. 교실에 사람-이 하나- \emptyset/∇ 가/*도/*는 보이지 않았다. (\emptyset 부정 극어)
- (28) ㄱ. 도서관에서 책- \emptyset/∇ 을 하나 보지 못했다. (\emptyset 부정 극어; ∇ 단순 수사)
 ㄴ. 도서관에서 책 하나- \emptyset/∇ 를/*도/*는 보지 못했다. (\emptyset 부정 극어; ∇ 단순 수사)
 ㄷ.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emptyset/∇ 를/*도/*는 보지 못했다. (\emptyset 부정 극어)
- (29) ㄱ. 그 애가 착하기-* \emptyset /*가/도/는 해.
 ㄴ. 그 애가 착하기-* \emptyset /*가/를/*도/*는 하냐, 예쁘기-* \emptyset /*가/를/*도/*는 하냐? 왜 좋아하는 거야?
- (30) ㄱ. 그는 돈-밖에/ \emptyset /이/도/은 없어.
 ㄴ. 사랑-밖에/ \emptyset /을/도/은 난 몰라.

(27)와 (28)은 부정 극어는 조사 ‘이/가’와 ‘을/를’이 결합할 수 없으며 제3유형의 다른 조사들도 결합에 제약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조사 ‘이/가’와 ‘을/를’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는 사실은 이들 조사가 의미·화용론 층위의 범주임을 보여주는 것

이라 하겠다. 이는 (29)과 (30)에서도 확인되는데,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29)과 유일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30)와 같은 맥락에서는 조사 ‘이/가’의 결합이 전혀 다른 의미를 산출한다.

이와 같이, 조사 ‘이/가’와 ‘을/를’의 쓰임이 이른바 ‘격조사’ 용법이든 ‘보조사’ 용법이든 의미·화용적 맥락에 따라 제약을 보이며, 그러한 제약이 제3유형의 다른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들 조사가 다른 보조사(참사)와 마찬가지로 앞 말의 의미(지시체)가 가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범주임을 보여준다.

3.3. 조사 분류의 기준

조사 실현에서의 분포적 공통성은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널리 지적되어온 사실로서, 조사의 공통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제시되어 왔던 조사의 하위 범주와 사실상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문법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전제 하에서 조사를 파악하고 분류 체계를 제시했기에, 조사의 ‘통합 관계’와 ‘계열 관계’에 따른 분포적 사실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조사의 분류는 이론적 전제가 아니라 조사 실현과 관련된 언어 현상에 기반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태, 통사, 의미·화용적 측면에서 분포적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를 규명하고 분류하여야 하는데, 조사의 분포적 사실에 기반해 조사 체계의 대안을 제시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표 3> 결합 순서와 조사의 의미적 기능에 따른 조사의 체계¹⁵⁾

15) <표 3>에서, 조사 ‘-만’, ‘-마다’, ‘-까지’ 등과 같이 ‘-에’나 ‘-로’ 등의 조사 앞에서도 실현될 수 있고 뒤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조사가 실현되는 위치가 유동적인 조사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조사의 체계’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각 조사들의 문법적 특징과 하위 분류에 기반한 가정적인 것으로, 조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그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하나, 이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개별 조사

결합 순서	기존의 체계	조사 형태	대안	
1	격조사/후치사	에, 에게(한테), 에서, 로	기능 조사	의미적 관계
	격조사/접속 조사	과(하고), 이랑		
2	보조사/특수조사/한정사	만, 부터, 까지, 조차, 마저, 마다	계열 조사	화용적 관계
3	격조사	가, 를, 의	양태 조사	
	보조사/한정사	는, 도, 야, 나, 나마, 라도		

기존의 여러 문법 이론에서 제시한 문장의 세 가지 층위인 ‘의미 층위(개념 구조)’, ‘통사 층위(통사 구조)’, ‘화용 층위(정보 구조)’를 수용한다면,¹⁶⁾ 한국어의 조사는 문장의 각 층위와 관련되는 요소로 파악할 수 있겠다. 즉, 문장은 그것이 나타내는 사태를 표상하는 ‘개념 구조’와, 그 사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주관적 태도)을 표상하는 ‘정보 구조’와, 이 구조가 반영되는 층위로서 각각의 언어 형식들 사이의 관계를 표상하는 ‘통사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 ‘-에’나 ‘-로’와 같은 조사는 ‘개념 구조’ 층위와 관계되는 부류로, ‘-가’와 ‘-를’은 ‘-는’이나 ‘-도’와 마찬가지로 명제(나 그 명제와 관련된 개체)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표상하는 화용적 층위의 ‘정보 구조’와 관계되는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조사가 모두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각각의 조사는 그 조사가 관련되는 문장의 층위가 ‘의미 층위(개념 구조)’인가, ‘화용 층위(정보 구조)’인가에 따라 크게 의미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와 화용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로 나눌 수 있겠다. 또한 각각의 조사가 문장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문법

에 대한 검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16) 문장을 이와 같이 세 가지 층위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한정환(1999), Dik(1978), Van Valin, R. D. Jr. & R. J. LaPolla(1997)등을 참조.

17) 이와 같이 조사 ‘-가’와 ‘-를’이 문장의 ‘화용 층위’와 관계된 조사라는 가정은 앞에서 제시한, ‘문장 성분’이나 ‘격’과 조사와의 범주 불일치 현상과, 맥락에 따른 조사 실현의 차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음을 상기하자.

적 특징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제 1유형에 속하는 조사들은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 영어의 ‘전치사’에 대비되는 ‘후치사’로 명명되어 왔는데, 그것이 쓰인 명사(구)의 의미적 관계—예를 들어, ‘에’는 그 명사구의 의미(지시체)가 서술어로 표현되는 사태(명제)에서 ‘배경’이라는 의미적 관계,¹⁸⁾ ‘로’는 ‘경로’라는 의미적 관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기능 조사’라고 할 수 있겠다.¹⁹⁾ 이들 조사는,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하나의 서술어를 중심으로 표현되는 사태(문장) 안에서 그 명사(가 나타내는 개체)의 의미적 역할을 나타내는 ‘함수’와 대응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명사 자체만으로 의미적 기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의 비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제 2유형의 조사는 그것이 쓰인 명사(구)의 통사적 기능과는 무관하며, 명사(구)의 의미(지시체)가 다른 것과 가지는 계열 관계를 한정하는 역할—예를 들어, ‘-만’은 그 명사(구)의 의미(지시체)가 계열 관계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한정된 것’으로, ‘-마다’는 그 명사(구)의 의미(지시체)가 그것이 나타내는 개체들로 계열 관계를 이루어 ‘각각’으로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계열 조사’라고 할 수 있다.²⁰⁾

18) 조사 ‘에’의 의미에 대해서는 고석주(2011) 참조.

19) ‘의미역’을 설정하는 관점에 따르면, 조사 ‘-에’와 ‘-로’가 쓰인 명사(구)는 여러 가지 의미역(‘-에’의 경우에는 ‘장소Place’, ‘목표Goal’, ‘원인Cause’ 등의 의미역, ‘-로’의 경우에는 ‘경로Path’, ‘도구Instrument’ 등의 의미역)와 관련되는데, 이는 Jackendoff의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개념 구조’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즉, 논항과 서술어와의 상관관계에 따른) 편의상의 ‘명칭’일 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역’ 이론은, 예를 들어 “철수가 학교-Ø/에/로/를 갔다”에서 볼 수 있듯이, 논항에서 실현 가능한 조사의 종류와 생략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들 조사의 ‘기본 의미’와 이 ‘기본 의미’가 맥락(혹은 서술어)에 따라 나타내게 되는 ‘관계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기약한다.

20) 그러나 제 2유형에 속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 조사가 제 1유형의 조사와의 결합 관계에서 문법적으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사 ‘-까지’는 여러 연구들(대표적으로 홍재성(1984)을 참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많은 경우에 조사 ‘-(에서)부터’와 함께 쓰여

제 3유형의 조사는 그것이 쓰인 명사(구)의 문장 안에서의 통사적 기능이나 의미적 역할을 나타내지도 않고 그 명사(구)의 의미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 1, 2 유형의 조사와 구별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흔히 제 2유형의 조사와 같은 범주로 묶어서 ‘보조사’ 혹은 ‘한정사’로 지칭해 왔는데, 제 2유형의 조사는 그것이 결합한 명사구 내에서의 다른 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에, 제 3유형의 조사는 그 문장을 넘어선 화용적 측면에서 사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제 3유형의 조사는 그 의미가 문장 자체의 ‘논리적 의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쓰인 명사(구)의 의미(지시체)에 대한 화자의 판단—예를 들어, ‘-는’은 그것이 쓰인 명사(구)의 의미(지시체)가 다른 사태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태의 범위(영역)라는 화자의 판단을, ‘-도’는 명사구의 의미(지시체)가 사태에서 가지는 관계가 다른 것이 다른 사태에서 가지는 관계와 동일한 것이라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양태 조사’라고 하겠다.

3.4. 새로운 조사 정의와 분류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조사의 정의와 분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겠다.

- (31) 조사: 조사는 앞 말에 붙어서 그 말의 의미(지시체)가 담화 맥락에서 다른 것과 가지는 관계를 나타낸다.

‘-에서 ~ -까지’ 전체가 하나의 논항처럼 기능하는데, 이는 그것들 전체가 하나의 계열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또한, ‘-조차’나 ‘-마저’의 경우에는 ‘불만’이나 ‘놀람’과 같은 화자의 판단이나 태도(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계열 관계를 이루는 것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이러한 중첩 의미가 이들 조사 자체의 의미인지 아니면 맥락에서 파악되는 의미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32) 조사의 분류

- ㄱ. 기능 조사: 앞 말에 붙어서 그 말의 의미(지시체)가 서술어의 의미(서술어로 표현된 사태)와 무슨 관계인지를 나타낸다. (에, 로, 와, 등)
- ㄴ. 계열 조사: 앞 말에 붙어서 그 말의 의미(지시체)가 (서술어로 표현된 사태에서 갖는 관계에서) 다른 것과 계열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만, 마다, 조차, 까지, 등)
- ㄷ. 양태 조사: 앞 말에 붙어서 그 말의 의미(지시체)가 (서술어로 표현된 사태에서 갖는 관계가) 다른 사태에서의 관계와 무슨 관계인지를 나타낸다. (가, 를, 는, 도, 등)

이러한 조사의 정의와 분류는, 서정수(1996)의 관점과는 달리, 조사가 이질적인 기능 범주들의 묶음이 아니라, 각 하위 범주의 조사들이 공통적인 특성을 지닌 하나의 균질적 범주임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조사를 ‘관계를 나타내는 범주’라는 공통성 위에서 관계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단일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개별 조사가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범주로 기술될 수밖에 없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여 문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는 말

이 글에서는 기존의 조사 정의와 분류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사의 분포적 특성에 기반해서 조사를 분류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제안한 조사 분류 체계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한국어에 기반하지 않은 언어 이론들의 가정이나 전제 개념들을 한국어에 적용하려면,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어 조사들 각각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앞으로 과제이다.

참고문헌

- 강은국(1993), 「조선어 문형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고석주(2000/2004), 「현대 한국어 조사의 연구I」, 한국문화사.
- 고석주(2011), “조사 ‘에’ 의미 재고”, 「국어학」61, 국어학회 93-115.
- 고영근(1993), 「우리말의 총체 서술과 문법 체계」, 일지사.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김석득(2009), 「우리말 연구사」, 태학사.
- 김승곤(1996), 「현대나라말본 — 형태론 —」, 박이정.
- 김영희(1974), “한국어 조사류어의 연구”, 「문법연구」 1, 문법연구회.
- 김영희(1999가), “사격표지와 후치사”, 「국어학」34, 국어학회, 31-58.
- 김영희(1999나), “보족어와 격표지”, 「한글」 244, 한글학회.
- 김용하(1999), 「한국어 격과 최소주의 문법」 한국문화사.
- 남기심·고영근(1993/2011),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윤진(1997), “현대 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목정수(1998), “한국어 격조사와 특수조사의 지위와 그 의미”, 「언어학」 23, 한국언어학회, 47-78.
- 박승빈(1935), 「조선어학」, 역대한국문법대계 1-50.
- 서정수(1994/1996), 「국어문법」, 샘이깊은물.
- 신선경(1998),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인석(1972), 「*Korean Syntax*」. 백함출판사.
- 양정석(1997), 「국어 동사의 의미분석과 연결이론」, 도서출판 박이정.
- 연재훈(1996), “국어 여격주어 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 28, 국어학회, 241-275.
- 우순조(1998), “모빌구조와 표지이론에 의한 한국어 통사의미 기술”, 「언어학」 22, 한국언어학회, 291-328.
-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이남순(1996), “특수조사의 통사 기능”, 「진단학보」 82, 진단학회, 217-235.
- 이익환(1995), 「의미론 개론」 한신문화사.
- 이춘숙(1993), “우리말 도움토씨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흥배(1998), “펼수구구조와 어순”, 「최소주의 이론」, 한신문화사.
- 이흥식(1996),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희승(1949), 「초등국어문법」, 역대한국문법대계 1-85.
- 임동훈(1996), “현대 국어 경어법 어미 ‘-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국어학회, 119-154.
- 임흥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정렬모(1949), 『신편고등국어문법』, 역대한국문법대계 1-61.
- 주시경(1910) 『국어문법』, 역대한국문법대계 1-11.
- 최동주(1997), “현대국어의 특수조사에 대한 통사적 고찰”, 『국어학』 30, 국어학회, 201-224.
-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한정환(1999), 『*Morphosyntactic Coding of Information Structures in Korean*』, 한신문화사.
- 허웅(1995/2000),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허웅(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 홍재성(1988), “현대 한국어 사전과 자동사/타동사 용법의 구분”, 『언어사실과관점』 1, 언어정보연구원, 35-64.
- 황화상(2012), 『국어 조사의 문법』, 지식과교양.
- R. D. Van Valin & R. J. LaPolla(1997),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Blake(1994), *Case*. Cambridge, MA: MIT Press. 고석주 옮김. 1998. 「격」 한신문화사. Blake, B. J. 1994.
- R. Jackendoff(1990) *Semantic Structures*. Cambridge, MA: MIT Press. 고석주·양정석(옮김)(1999), 『의미구조론』, 한신문화사.
- R. Jackendoff(1997), *The Architecture of the Language Faculty*. MIT Press.

고석주(Ko, Seok-Ju)

[26493]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1, 청송관 318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gosj@yonsei.ac.kr

원고 접수일 : 2019년 10월 14일

원고 수정일 : 2019년 11월 18일

게재 확정일 : 2019년 11월 22일

Abstract

On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josa’

Ko, Seok-Ju,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oblems it has with respect to existing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 schemes on ‘josa’. It is argued that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josa’ is based on the distributional facts of ‘josa’. It is concluded ‘Josa’, attached to the preceding words, indic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of the words referents) and others in the context of discourse, and should be divided into functional ‘josa’, paradigmatic ‘josa’, and modal ‘josa’.

Key words: ‘josa’, Distributional Facts, Definition, Classification, Referents

핵심어: 조사, 분포적 사실, 정의, 분류, 지시체